

멕시코 국경 도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생활상에 관한 고찰*

김명혜(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글의 순서

I. 머리말

II. 멕시코의 경제발전과 마길라 산업의 발달

III. 마길라 노동자들의 노동경험과 가족생활

IV. 마길라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상

V. 마길라 노동자들의 거주지역

VI. 맺는말

I. 머리말

본 논문은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멕시코 마길라 산업(maquila industry)¹⁾과 그 종사자들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세

* 본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 1997년 12월 5일에 열린 한국라틴아메리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마길라'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마길라 산업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함.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길라 산업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둘째, 마길라 산업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의 산업화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셋째, 그러한 산업화, 도시화가 도시 주민들, 특히 마길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성원들과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는 문화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히려고 한다.

멕시코에서의 마길라 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엄청난 성장을 해 왔고 특히 미국 남부와 접해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있어서 마길라 산업의 성장은 가히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멕시코 마길라 산업의 성장은 멕시코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국가적 자본의 이동과 함께한 “경제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부적 역할을 해 온 국가들과 제3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Sklair(1993)가 주장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의 국제 정치, 경제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자본가계급의 재형성’(capitalist reform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빈곤의 극복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목표로 하여 경제발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자본들은 재형성되고, 국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재형성되고 있다. 마길라 산업은 바로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재형성과정 중에서 나타난,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길라 산업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마길라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의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문화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마길라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계급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gender relations)에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학술 및 통계자료와 필자가 직접 수집한 면담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필자가 1996년 여름에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여행하면서 만난 마길라 노동자들과의 집중면담은 본 연구를 위하여 소중한 질적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국경지대로의 여행은 텍사스주의 산 안토니오(San Antonio)시에 있는 마길라 산업을 위한 정의실현연합회(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이하 CJM으로 약칭함)가 주관하는 소위 '맹독성 여행'(Toxic Tour)이 계기가 되었다.²⁾ 필자는 이 맹독성 여행의 일정에 따라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동쪽 끝에 위치한 마따모로스(Matamoros)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행을 통해서 수립한 관계망을 바탕으로 하여 국경의 서쪽 끝인 티후아나(Tijuana)시에 이르기까지 2,000마일을 여행하면서 마길라 노동자들과 직접 면담하면서 연구, 조사할 수 있었다. 필자가 여행하며 조사했던 도시들은 마따모로스나 티후아나 이외에도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리오 브라보(Rio Bravo), 그리고 레노사(Reynosa) 등을 포함한다. 필자는 도시 내의 마길라 공장들

2) '맹독성 여행'이란 환경오염 물질들을 무분별하게 방출해 내는 마길라 산업단지로의 여행을 의미한다. 필자가 참여했던 여행은 CJM의 관리책임자(managing director)이면서 동시에 수녀인 Susan Mika가 조직한 것이다. Mika 수녀는 이러한 여행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생활상, 특히 마길라 산업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환경오염의 문제, 보건, 위생문제, 그리고 빈곤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마길라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Forbes 1998). Susan Mika가 속한 베네딕트(Benedict) 종파의 수녀들은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 즉 마길라 공장들의 모(母)기업들의 주식들을 약간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 시에 발언권을 갖기 위함이다. 이들은 주주총회 때에 자신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의 만행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태도를 바꾸도록 종용한다. 특히 기업들이 행하는 노동권 침해와 환경오염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 모여 있는 공단(paque industrial)을 방문하여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즉, 마길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집중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은 면담자들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면담자 수는 각 도시당 6명씩의 마길라 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는 5명의 운동가를 포함하여 모두 35명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쪽 쌍둥이 도시에³⁾ 위치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마길라 산업과 마길라 노동자들에 관한 통계자료 및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참조하였다. 특히 에딘버그(Edinburg)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의 역사자료실과 샌 디에고(San Diego)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미국-멕시코학연구소(Center for U.S.-Mexico Studies)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은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II. 멕시코의 경제발전과 마길라 산업의 발달

멕시코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처럼, 19세기에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이래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화의 제1단계를 마친 상태였다. 이 당시의 산업화정책은 소위, '수입대체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3)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는 도시들이 서로 맞붙어 있는 쌍둥이 도시(twin city)들이 많다. 이러한 도시들은 자연히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원활한 국경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 외에, 멕시코의 여러 가지 유리한 기업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 조립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시장으로 수출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단들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들이기도 하다.

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체된 것은 종전의 공산품 수입을 외국 자본과 중간제품으로 대체하여 수입했을 뿐, 국제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다(Foster-Carter, 1985). 즉, 멕시코와 같은 제3세계가 ISI정책을 고집하면 할수록 이득을 얻는 측은 제3세계 국가들보다는 외국 자본을 장악하고 있고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들이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시설들을 수출 시장 가까이,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제3세계에 유치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특히 1950년대 이후에는 노동과정을 분할하여 여러 나라에서 자재와 부품들을 조립하고 공정하는, 소위 외국에서의 재료조달(offshore sourcing)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⁴⁾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값싼 노동력과 외국 자본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용,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선두로 하여 수출 지향적인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이하 EOI로 칭함)정책을 펴 오던 몇몇 신흥 산업국가들은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들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은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offshore sourcing의 욕구에 맞추기 위하여 공단을 형성하였고, 설비, 재료, 부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을 마련해 주었으

4) Sklair(1993)는 'offshore sourcing' 과 함께 'transfer pricing' 을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자본주의를 재형성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Transfer pricing이란 제품과 용역에 대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금융혜택, 이익, 비용조정 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며, 관세혜택을 주었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에 호의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의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하여 국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과 제3세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점목되면서, 20세기 후반부에는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출자유지역들이 제3세계 국가에 우후죽순식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그 동안 중점적으로 활동을 벌이던 아시아가 지리적인 거리상에 있어서 설비와 제품들을 선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장벽 탓으로 아시아인들과의 교신문제도 수월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멕시코도 1965년 이후로는 ISI정책이 외채문제, 실업문제 등의 해결에 별 도움을 못 준다는 판단하에 EOI정책으로 전환하고, 특히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공장을 짓기 위해 외국 회사들의, 특히 미국 회사들의 진출을 유도하기 시작했던 터였다(Cook et al., 1994).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미국 관세법(806/807조)⁵⁾의 혜택을 이용하여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공장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공장들을 '마길라'라고 부른다.⁶⁾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재와 부품들을 제공하

5) 1962년 9월에 선포된 미국 관세법 806/807조는, 미국 밖에서 조립된 미국 생산 제품들은 부가가치(즉,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 overhead 비용)에 대한 과세만으로 미국에 다시 반입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Safa, 1986).

6) 마길라란 멕시코 농부들이 옥수수를 갈기 위하여 방앗간으로 가져갈 때, 그 수고비로 내는 옥수수 가루의 양을 재는 단위를 말한다(Larousse 1983). 마길라 산업의 경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옥수수(즉,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를 제공하는 농부인 셈이고, 멕시코는 그 수고비(즉, 임금과 생산비)를 챙기는 방앗간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 멕시코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 팔거나 혹은 마길라 노동자들을 위시하여 멕시코 사람들에게 판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마길라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경 도시의 미숙련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두는 외에도, 마길라 기업들이 국경지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멕시코 전체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멕시코의 마길라정책은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 걸쳐서 확대되었고, 특히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마길라 산업은 멕시코의 제조업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

특히, 1994년에 출범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하 NAFTA로 표기함)를 계기로 하여, 마길라 기업들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매우 공격적인 유치작업을 벌여 오고 있다. NAFTA는 멕시코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수출 지향적인 산업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길라 산업은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였다. 경제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적이고 내수 지향적이었던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와 더불어 소위 '개방경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제 자본주의 경제 및 국제 사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NAFTA가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오고 있는 국경지대의 마길라 산업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현재 마길라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만 보더라도 NAFTA의 취지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의 적시사용을 통한 생산효율성의 증가라는 문제가 기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깝다는 상

대적인 이점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Shaiken, 1990). 멕시코 정부는 NAFTA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NAFTA가 멕시코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국경지대의 마길라 산업과 같이 최저의 임금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산업에⁷⁾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보호를 통하여 멕시코를 동양의 신흥공업국들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의 산업기반을 갖춘 나라로 만들 꿈을 갖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에는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마길라 산업화뿐만 아니라, 전 멕시코의 마길라화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마길라 노동자들의 노동경험과 가족생활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은 부라세로(bracero)정책⁸⁾의 중단으로 말미암은 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65년에 도입된 국경산업화정책(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이하 BIP으로 칭함)의 일환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BIP는 멕시코 내에서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국경지대를 경제

- 7) 마길라 공장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마길라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 행한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테스트하는 시험 결과를 한 예로 든다면, 멕시코 노동자들은 96%가 우수한 성적을 보인 반면에, 똑같은 테스트에서 미국 노동자들은 1%만이 같은 수준의 성적을 보였다. 마길라 산업에 종사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하여 잦은 이직률과 높은 결석률이 지적되기도 하나, 이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마길라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각각의 국경 도시의 정치, 사회적인 특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Sklair, 1993).
- 8) 부라세로정책은 미국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농업 및 기타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노동이민정책이다. 1942년에 시작되어 1964년에 종결될 때까지, 4백만이 넘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일했다(Briggs, 1984).

적으로 활발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Fernandez- Kelly, 1983). 따라서, BIP은 소규모의 봉제공장 같은 기업들보다는 명망 있는 미국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멕시코 국경 도시들이 제공하는 지리적인 근접성과 값싼 노동력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다.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1970년대 이후로는 마길라 공장의 수뿐만 아니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고, 멕시코 국경 도시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⁹⁾ 예를 들어, 1967년에는 72개의 마길라 공장에 4천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었으나, 1997년에는 2,823개의 공장에서 약 9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INEGI 1997). 이 중에서 멕시코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길라 공장은 멕시코 전체에 있는 마길라의 80%를 차지하는 2,258개이고,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약 77만 명이다(INEGI, 1997).

멕시코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길라 산업의 주요 종목은 전통적인 마길라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와 가구 생산 외에도 최근에 들어서는 전자제품의 부품 및 제품(TV, CD, 카세트, 스위치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의자, 핸들 등) 생산도 눈에 띄게 급성장하고 있다(INEGI, 1997). 그리고, 화공약품(화학비료, 농약, 합성세제, 페인트 등)과 같은 “기타 제품” 생산도 포함한다. 마길라 산업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 및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점점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Szekely 1991).

멕시코의 마길라 공장들은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따라서 특별히 멕시코

9) 멕시코에서 마길라 산업이 굴곡 없이 성장만 해 온 것은 물론 아니다.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은 미국의 경제변화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부의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 등 내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klair (1993)참조.

정부가 조성한 거대한 공단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리오 브라보(Rio Bravo)시처럼 몇 년 전만 해도 불모지대이었던 곳이 마길라 산업을 위한 공단들이 들어서면서 '대도시'로 변신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 국경 도시에서 마길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집중도라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노동자 숫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후아레스(Juarez)시에는 GM, TDK, Thomson-RCA, Zenith, Philips, Chrysler 등과 같은 미국계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 생산 기업들로 구성된 마길라 기업들이 328개나 있고, 이들 기업들이 고용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숫자도 18만 명이 넘는다(CJM 1997). 한마디로, 멕시코의 국경 도시는 마길라 산업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마길라 산업에 의해서 운영되며, 따라서 마길라 산업의 흥망성쇠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며, 도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길라 산업의 특징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마길라 산업의 노동조건, 즉 마길라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마길라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해는 마길라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공동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길라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에 대한 논의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작업 환경, 그리고 노동쟁의 등을 포함한다.

1. 임금

임금수준에 있어서 멕시코의 마길라 노동자들이, 그들의 모(母)기업이 속해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에 비하여 크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학자들간에 이의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러나, 마길라 노동자들이 멕시코인이 고용주로 되어 있는 기업, 즉 멕시코 토착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하여 더 착취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다. 멕시코

정부는 마길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국경지대에 가장 높은 최저임금수준을 설정해 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통 다른 멕시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여러 배를 받고 일하는 데 반하여, 마길라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수준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이어서 (Tiano, 1994), 실제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길라 노동자들이 더 많은 곤란을 받고 있다.

더구나, 마길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국경 도시들은 멕시코 내에서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물가가 높고,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멕시코의 물가상승률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1994년에는 폐소(즉, 멕시코 돈)의 평가절하가 일어나고,¹⁰⁾ 1998년 2월에는 또르띠아(tortilla)의 값이 폭등하는 등으로 인하여, 마길라 노동자들의 생활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마길라'(maquila)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마길라 산업의 주요한 특징은 노동자들이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양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회사에서 책정해 놓은 생산성 이상을 보여야 임금도 따라서 올라가고, 반면에 일을 효율적으로 못해 내면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다. 한 노동자당 정해진 생산량이 있고, 노동자가 그 생산량을 해낼 때만 기본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길라 공장마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수당의 종류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노동자들에게 보너스가 따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운동화를 생산하는 마길라 공장에 다니는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시간당 30 켈레 운동화의 박음질을 해내야 돼요. 그것이 회사가 정해

10)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전만 해도 3kg의 또르띠아(tortilla : 멕시코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전병)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다음날에는 0.5kg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평가절하가 되었다.

높은 생산량의 75% 효율성인 거죠. 100% 효율성을 달성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한 시간에 60개 내지 70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30개를 해내기도 힘들어요. 나는 숙련이 되어서 잘하는 편이지만, 할당량을 못해 내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남은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요. 내가 일을 못해 내면, 그 일을 받아서 다음 공정으로 이어 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도 일을 못하는 식이거든요.

리오 브라보에서 만난 또 다른 마길라 노동자는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전자부품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밤 근무를 맡고 있어서 오후 3시에 출근하는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3시간 일하면서 205페소를 받고 있었다. 이는 시간당 5페소가 안 되는 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0원 정도의 임금이 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이라고 한다면, 멕시코 마길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장운동을 한국에서 멕시코로 옮김으로써 노동자 임금을 7배나 감소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설상 멕시코의 물가가 우리나라의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할지라도, 멕시코 노동자들은 똑같은 혹은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비하여 몇 배나 더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마길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단위시간당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 내야, 소위 평균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냄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에 손에 받아 쥐는 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신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예를 들어, 리오 브라보시에 살고 있는 마길라 노동자 가족의 경우에, 가족원 중 두 명이 마길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마길라 임금으로는 전기료, 수도료, 공중전화비 등 모든 비용을 줄여야, 겨우 식구들이 먹고 자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이 충당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식구들 중에서 2명 이상이 마길라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멕시코 국경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가족들 중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니, 대부분의 마길라 노동자 가족들은 더욱더 열악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멕시코는 1994년에 대대적인 페소 가치절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마길라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큰 변동이 없어 왔다. 6개월마다 임금을 조금씩 올려 주었다는, 레노사시에 위치한 Z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도, 자신이 현재 받는 임금으로 살 수 있는 토르띠야, 콩, 국수, 감자, 야채, 쌀, 달걀, 고기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양과 5년 전 Z회사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임금으로 살 수 있었던 생활필수품의 양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동안 임금은 명목상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데 비하여, 물가는 몇 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길라 노동자 가족의 경우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구입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가족원들의 의료비와 교통비를 충당하기도 수월치 않다. 많은 마길라 노동자들이 마길라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단 주변의 동네에 살고 있지만 워낙 공장들이 대규모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출, 퇴근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들을 이용한다. 마길라 노동자들은 같은 동네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 퇴근용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노동자들은 생계해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대중교통비 또한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가족성원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특별히 병원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게 되면 그 부담은 엄청나게 커서, 가족원들의 식비 등 기초 생계비를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가족원들이 감기, 설사 등과 같은 일상적인 질병을 앓게 되면 참고 지내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면 이웃집으로 가서 그들이 전에 먹다 남은 약들을 얻어다가 먹고 낫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거나, 버스를 타고

서 지정된 보건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는 데 드는 약값, 버스비, 진료비, 기타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길라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은 좀처럼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즉, 1994년에 멕시코, 미국, 그리고 캐나다 3국 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마길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하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멕시코의 마길라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임금이 낮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기업을 존속시키고 또한 번성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하에서는 멕시코의 임금이 미국의 임금 수준을 염두에 두고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임금수준이 멕시코의 저임금을 향하여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 고용안정성

멕시코 국경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는 마길라 공장들은 소위 '도망 다니는 공장들'(runaway plants)¹¹⁾이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씻어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장운명을 하다가 문을 닫는 마길라 기업들이 있기는 하나, 장기간으로 보면 공장 문을 닫고 기업여건이 더 나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추세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와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길라 기업들의 '무분별한 도주'라기보다는 흔히 국적을 달리하는 마길라 기업들간의 인수 및 합병을 통한 기업구조

11) '도망 다니는 공장들'이라는 개념은 다국적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주로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며 공장을 세우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 노동의 탈기술화, 그리고 분절화되어 가는 노동과정 등에 힘입어서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들의 높은 임금을 피해 별다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일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길라 기업들간의 인수와 합병은 노동자 수의 조정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무 재배치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새로운 경영진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랫동안 일해 온 노동자들도 새 경영진하에서는 신참 노동자들로 전락하여 임금이 하향 조정되거나, 정규고용이 아닌 시한부 계약고용으로 재고용되어서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공장 구조의 재조정하에서는 각각의 노동자들이 해 오던 노동의 내용이 재정 의되고, 종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강도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변화된 작업장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부담도 늘게 되는 것이다.

레노사 시에서 우리나라의 L그룹이 인수한 Z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의 경험은 이러한 마길라 산업의 측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공장이 미국의 Z회사에서 한국의 L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한국에서 온 Mr. Lee의 지시에 따라서 인원감축이 있었다. 내가 13번 공장 (Planta 13)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1교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L회사가 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첫번째 인원감축을 감행한 뒤로는 노동자들 수가 4천 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다시 95년 12월에 있는 두번째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노동자 수가 천 오백 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인원감축은 일 정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 것이었다. 인원감축에 따라 나는 3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6대의 기계를 다루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월급은 원래 오르던 만큼만 올랐다... 나는 본래 해 오던 기계를 다루는 일 이외에 청소도 해야 했다. 그런데 그들[한국인 관리자들]은 종전의 40~60%의 인원만으로도 1994년과 같은 생산효율을 보았다면서 만족해 했고, 인원감축은 역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리자들에게는 시간단위당 노동자들이 많은 일을 해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여

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더하도록 명령하고 시켜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 일까지 시켜 가면서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전에는 하나의 공정만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6~7개의 공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전에는 부품을 조립하는 라인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했는데, 현재는 25명만이 일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강화된 노동강도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월급이 동결된 상태이다...그리고 현재에는 종전과는 달리,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제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3개월 간 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멕시코 노동법상] 불법이며 허가되지 않는 고용 방식이다. 물론 계약서에는 좋은 말들만 쓰여 있다. 하지만, 계약서 그 어디를 보아도 사람(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즉, 임금을 언제 얼마만큼 올려 주고,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얼마만큼 향상시켜 줄 예정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임시 계약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동안 10~15년 일해 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일종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시 계약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마길라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을 경험하면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불안하게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별다른 기술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 마길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해결의 대안이라면, 막노동이나 가정부 일처럼 마길라 노동보다 더 임금이 낮고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의 노동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길라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이라든가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공장측에 요구하기보다는, 마길라 노동이 다른 대안적 직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나은 직업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노동의 악조건을 감내해내고 있다. 동시에, 마길라 노동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보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따꼬(taco : 멕시코 음식 이름) 등을 만들어서 근무시간 이외에 집 근처에서 팔면서, 제2의 노동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공식 경제행위는 소규모 자영업적인 성격을 띠면서 가족구성원들이 총동원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앞서 소개한 마길라 기업들간의 합병 사례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불안정성과 같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 이외에도 기업주와 관리자들이 국적과 인종을 달리하면서 바뀔 때마다 그들의 새로운 공장운영 방식, 임금정산방법, 임무배치, 그리고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태도 일반에 걸쳐서 매번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리오 브라보시에 살면서 한국 기업이 경영주로 되어 있는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말하기를,

회사의 기업주가 바뀌면, 처음에는 새로운 경영진들이 와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노동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경영진들로부터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우리처럼 고용된 사람들이라,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더구나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영인이 한 사람씩 늘어날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싫어하게 되고, 또 서로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도 잃게 되지요. 우리처럼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고 공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마길라 공장 내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에 철저한 위계관계와 권력관계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외국인인 고용주들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거나, 몇 마디 간단한 어휘 구사만 가능할 뿐, 영어를 주로 쓴다. 고용주들은 미국인들이 아닌 경우에도 영어

를 쓰고 미국인들처럼 행동함으로써 노동자들과의 거리감을 조장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대신에 고용주들은 몇몇 신입할 수 있는 멕시코 노동자들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관리인(encargado(a))이나 감독관(supervisor(a))으로 승격시키고,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의 중간 역할 혹은 노동자들의 감독관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여기서 중간 역할이란 주로 고용인의 회사운영 방침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권유하는 일이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주와 멕시코 노동자들 간의 언어장벽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티후아나시에서 만난 한 마길라 노동자는, 필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서는, 필자에게 '개새끼'가 무슨 뜻인지 스페인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당황한 일이 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H기업이 운영하는 한 공장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는, 종업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노동자로서, 작업장에서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쉴 새 없이 듣는 단어가 '개새끼'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그 한국인 관리자는 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신에 손가락질을 해 가며 높은 소리로, 좋지 않은 얼굴 표정을 해 가면서 그 말을 사용하니 분명히 나쁜 의미의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스페인어로는 무슨 뜻인지 번역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물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표현은 다국적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에서 논의한 임금 및 노동불안정성, 그리고 문화충돌 등은 멕시코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길라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3.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마길라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있어서 다른 멕

시코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경 도시들의 열악한 경제적인 조건 탓으로 마길라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쌍둥이 공장 소식』(Twin Plant News)과 같이 마길라 산업의 육성을 옹호하는 잡지마저도, 마길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이다(Sander and Mendoza, 1990). 다시 말하면, 마길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길라 노동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많은 마길라 노동자들은 구두, 옷(새 옷 혹은 헌 옷), 금이나 은으로 된 장신구, 화장품 등을 동료 공장 노동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팔거나, 공장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휴일에 집에서 따꼬와 같은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등으로 해서 과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혹은 신체적으로 가능한 모든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나서서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해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려 하고 있다.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가 장시간 노동에 생계유지가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의 성격이 단순, 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개개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선호나 신체적인 조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노동의 종류가 임의로 부여된다. 노동강도 또한 공장 책임자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작되는데, 특히 마길라 기업의 고용주가 바뀔 때 이러한 조작은 더욱 활발히 일어난다. 예를 들어, Z회사가 L이라는 기업에 인수되기 전인 1991년부터 일해 오고 있는 한 노동자의 말을 빌리면, “전에는 지금처럼 일하기가 힘들지 않았다. 인력이 남아돌지도 않았으면서, 일도 쉬웠고, 지금 같은 아수라장은 아니었다. 한국 회사와 Z회사 간에 협상이 오고 가고, 마침내 Z회사를 한국 회사가 인수하고부터는 노동 조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한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안한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어쨌든지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쉬게 되어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노동자들은 거의 다 나와 일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해고되지요. 회사측의 설명으로, 제품의 선적 날짜를 지켜야 한다면요?

마길라 기업들은 이러한 상호간의 합병과 인수를 통하지 않고도, 공장을 2교대 내지 3교대로 운영하면서, 노동강도의 극대화를 꾀한다. 소위 '생산 quota를 맞추기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2교대로 하여 낮과 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별하고 밤 근무 노동자들에게는 약간의 임금을 더 지불할 뿐이다.

운동을 생산하는 마길라 공장의 한 노동자는 말하기를,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오후 6시까지 일하죠...우리들의 출근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근버스가 늦는 경우는 우리 모두가 출근시간에 늦게 되죠. 우리들이 오 분이라도 늦게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요. 통근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이런저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많이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니까 쉽게 다른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마길라 공장들 중에는 노동자들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간 유급휴가기간을 1, 2주일씩 규정해 놓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해진 휴가기간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불평이다. 회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작업을 계속시킨다는 것이다.

마길라 산업의 노동 성격은 대부분 단순한 작업을 그 특징으로 하며,

“시간이 지나면 숙련되는” 일로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신체의 일정한 부분만 계속해서 쓰게 되고 따라서 무리가 오게 된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일본 H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눈이 몹시 피곤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쉴 수는 없어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까 쉴 수가 없죠. 쉬는 만큼 더 일해야 해요. 일이 더 생긴다 할지라도 안하면 해고되니까요.

마길라 회사측에서는 일의 강도를 임의로 정하고, 노동자들은 불평 없이 따라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국적 마길라 공장들이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조건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멕시코 노동조합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의 어용노동조합인 신디카또(sindicato)는 불합리한 노동조건,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등과 같이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관한 것만 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 이어질 ‘노동쟁의’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4. 작업환경

마길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환경 면에 있어서 작업장의 안전 문제, 보육시설, 식사제공, 여가활동 여부 등은 단순히 고용주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기보다는 공장의 크기와 마길라의 생산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의 안전시설 미비와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장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들은 마길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매해 늘고 있다. 마길라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쉬운' 일들을 하지만, 흔히 유독한 화학약품이나 털 먼지 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이 되는 등 안전치 못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탓으로 척추장애, 팔 마비 등 각종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누에보 라레도시에 있는 한 페인트 공장의 품질 관리부에서 9년 가까이 일해 오고 있는 한 여성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품질 관리부에서 생산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한 번에 약 30분 정도 검사를 하고는 밖으로 공기를 쐬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일합니다. 솔벤트나 다른 유독 화학약품들에 노출될 위험성은 항상 있죠. 입에다 대고 쓰는 작은 마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 공장에 일하러 들어갈 때는 눈이 따끔거리기도 하고, 구역질도 나면서 어지럽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지죠.

이와 같이 신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인 경우에는 임신장애,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한다. 위에서 인용한 여성 노동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해 8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두개골이 갈라져서 태어난 기형아였어요. 낳자마자 죽었어요. 임신중에는 몸이 많이 부어오르고 똥똥해져서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임신하면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지요. 의사도 별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형아를 낳고 보니, 의사가 하는 말이 기형아를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유전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공장에서의 솔벤트나 화학약품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에도 이 공장에서 일

하던 2, 3명의 여자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졌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아이가 죽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해요. 물어 보지도 않으니까요. 이제 올해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 해요… 가능하면 솔벤트가 없는 공장으로 옮겨 보고도 싶어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다시 임신하는 것이 좀 두려워요.

마길라 고용주들은 위와 같은 '시끄러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절차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을 남성 노동자들과 분리한다. 한 예로서 마따모로스시에 있는 P회사를 본다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로서 임신 여부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채용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임신하지 말 것이 종용된다. 그 이유는 여성 노동자들은 유독 화공약품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 작업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임신하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될 확률이 높고,¹²⁾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길라 공장에 따라서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일일이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여성 노동자들로 하여금 매달 자신들이 임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물, 즉 피문은 생리대를 회사측에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비인간적인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이러한 방침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임신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역시 해고의 압력을 받는다.

마길라 노동자들이 단순, 반복적인 노동의 성격이나 혹은 건강에 해로운 작업환경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책임회피적이다. 예를 들어, 마따모로스시의 한 공장에

12) 마길라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기형아를 낳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조사기간 중에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에서 뇌가 없는 아이를 낳았다든지 발육부진의 미숙아를 낳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누에보 라레도시와 마따모로스시에서 목격하였다.

서 자동차 운전대에 가죽커버를 손으로 꺾어서 부착하는 일을 수년 간 해 온 한 여성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몇 달 전부터 몸 오른쪽 전체에 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다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서, 나는 하는 수 없이 필요한 서류를 떼어 가지고 산후안(San Juan)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의사는 내게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진찰과 검사를 실시하더군요. 계속해서 진찰비와 검사비로 돈은 들어기는데, 몸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소를 찾아갔지만,¹³⁾ 거기에는 내 몸을 낫게 해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의사들은 없었어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곤 눈물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면서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반면에, 회사는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커녕 회사로부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개탄한다.

마길라 공장들 중에는 정해진 안전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고, 따라서 노동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D회사 소유의 농약 생산공장에서는 얼마 전 공장 내의 폭발사고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한꺼번에 빼앗아 갔다. 그런데,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노동자피해보상에 있어서 마길라 공장들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테니스화를 만드는

13) 이러한 진료소를 '세구로 소시알(Seguro Social : 사회안전보장 진료소)'이라고 하는데, 세구로 소시알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얻은 질병과 사고를 치료해 주고,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빈도에 따라 회사에다 치료비를 청구한다. 따라서 많은 마길라 회사들은 세구로 소시알을 찾아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양호실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가능하면 회사 내에서 해결하고 치료하려고 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에 발을 다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부위를 다친 채 절룩거리며 다녔다. 회사에서는 다리를 다친 것은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라고 책임회피를 하면서 보상은커녕 치료도 안해 주었다는 것이다. 마길라 공장측에서는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유사한 사례들을 흔히 듣는 노동자들의 '불평'으로 치부하면서 공론화되는 것을 회피한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마길라 노동자들은 '쓸데없는 불평'으로 회사로부터 해고의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조차 '묵묵히'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는 당장 생계위협을 의미하며, 가족생활의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노동쟁의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길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노동조건들을 '상습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마길라 노동자들은 흔히 고용주와 국적을 달리하면서 상호간의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심지어는 인종차별주의까지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하소연할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Carrillo, 1985 ; Middlebrook, 1991), 마길라 노동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노동조합인 CTM(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Mexicanos, 이하 CTM이라 칭함)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항상 앞장선 것은 아니다. CTM과 같이 멕시코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기보다는, 다국적 마길라 기업의 입장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고 강요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그 대가로 기업주들이 건네주는 뇌물 챙기기에만 급급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CTM과 같은 공식적인 노동조합들이 철저하게 부패되

어 있다는 것은 멕시코 사회 전체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들 노동조합들은 멕시코 정부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정치조직으로서의 성격마저 띠고 있어서, 마길라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정치판도를 기능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마길라 공장이 세워졌을 때 공식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주, 노조,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타협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마길라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나,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노동문제에 대한 불만 등, '회사 일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비록 성문화된 금지사항은 아닐지라도) 발설했을 때는 감봉이나 임무의 재배치, 심지어는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조용하게 불만을 참고 지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1976년 폐소의 평가절하가 실시됨으로써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에 노동자들이 불만을 품게 되어 이곳 저곳에서 봉기하기도 하였다.

메히칼리(Mexicali)시에 위치하고 있는 M공장과 누에보 라레도시의 T공장의 생산감축에 반발한 노동자운동은 유명하다. 노동자들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는 공식적인 노동조합을 동시에 비난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노조결성과 처우개선, 그리고 작업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며칠 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의 제지로 각각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 정부와 마길라 산업이 "생산을 위한 동맹"을 맺게 되고, 공식적인 노동조합인 CTM은 "이제 정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점점 더 많이 갖기 시작한 노동자

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실망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 활동에 흥미를 잃은 채, 소극적으로 고용주들의 선의만을 바라는 신세가 되었다.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압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식적인 노동조합과 멕시코 정부의 조사대상이 되어 그들의 이름은 '검은 명단' (black list)에 올려진다. 이들은 일단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른 마길라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해 보려고 애쓰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의 이름은 모든 마길라 공장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른 공장에서조차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동료였던 노동자들로부터, 혹은 CJM과 같은 국제인권 및 노동운동단체들(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들)로부터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노동운동가 혹은 지역운동가로서 변신을 꾀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어렵사리 마길라 공장에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곧바로 자신들의 작업조건이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받는 주급이 생계해결에 부족하다는 등의 고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의 노동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미국 노동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훨씬 좋고 안전한 작업조건에서 임금도 10배 이상 받는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일반 노동자들은 마길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나서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옛 동료들로부터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다른 나라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얻게 되고, 멕시코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의 내용도 함께 공부하면서, 비교사회적인 시각과 더불어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차츰 일깨워 나가게 된다.

모든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운동가나 지역운동가로서 어떤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또 다른 마길라 공장

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꾸준히 시도하기도 하고, 마길라가 아닌 다른 직종의 일거리를 찾아보기도 하며,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마길라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나은 임금이나 생활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더욱 심한 생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 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식당일이나, 전화교환수와 같이 다른 직업을 구한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업과 반실업을 오가며 필자가 그들을 만난 1997년,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지난날의 마길라 공장생활만을 반추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길라 공장 노동자이었다가 해고되어서, 여러 종류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생계해결을 꾀해 온 한 남성도, “마길라는 내 인생을 짓밟아 버렸다”라고 개탄하면서, 자기 생에 있어서 불행의 시작을 마길라에 돌리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는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대상은 사소하게는 공장 노동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자기 의사표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제재방법도, 단순히 노동자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구체적인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Z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에게 한 부서에 몇 명이 일하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이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즉, 고용주가 자신을 회사의 ‘기밀’ 들을 발설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다. 또 레노사시에 사는 한 노동자는 “우리가[노동자들이] 가진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간했다” 해고당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1월에, 동료인 에두아르도와 나는 다른 사람들(노동자들을) 종용하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글들을 모아 발간하려 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죠. 4, 5일에 한 번씩 이 잡지

를 출판하였는데, 이 잡지는 이곳 저곳에 흩어져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노동자들이 서로 알 수 있게 했어요. 회사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리고 다른 공장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등을 말예요. 그러자 이 잡지의 출판에 대하여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차차 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어떤 익명의 독자는 내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회사측에서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도 나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 후에 나는 폭행을 당했고, 회사에서는 내가 당한 협박에 대해서조차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어요. 나는 공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그만둠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당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니까요. 회사에서는 내가 한 일들을 자세히 조사하였고, 나같이 한 곳[공장]에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다른 곳[공장]으로 옮겨가서도 또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회사는 내가 한 일을 다른 모든 공장에게 알림으로써 내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와 같이, 동료 노동자들의 의식을 높이려 한다거나, 노동조건이나 임금 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선동하거나, 혹은 회사의 치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그들이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해고시킨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자 선동가라는 딱지가 붙어서 그 이름이 마길라 공장 책임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그러한 '말썹의 소지가 있는'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서로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노동자는 해고 후에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길라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계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 노동자의 경우 처럼,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혹은 저임금으로 핵가족의 생계유지가 위협받을 때, 확대가족망이나 대부대모제를 통한 가상친족망(compadrazgo

system)은 주요한 생의 안전망으로서의 구실을 한다(Lomnitz, 1975).

IV. 마길라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상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노동시장에서 성(gender)은 매우 복잡한 양태로 작용한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각각의 국경 도시들마다, 소위 '마길라 급' 여성들의 공급상태가 다르고, 그에 따른 마길라 고용주들의 대처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로서 자본이 재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마길라 급 여성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마길라 산업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그러한 남성 노동자들이 소위 이상적인 마길라 노동자로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용될 확률은 높다는 점이다. 이때 이상적인 마길라 노동자로서의 속성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성과 부합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성성에 대한 재정의와 더불어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계급의 재편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체적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을 논하고, 그러한 노동경험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하여 나이가 어리고, 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마길라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마

14) '마길라 급' (maquila-grade) 여성들이란 간단히 기술하면,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여성으로서 '이상적인' 속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주는 임금을 불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들을 일컫는다. 여성으로서의 이상적인 속성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본 절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다.

길라 산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임금 고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15세 이상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눈에 띈다(Sklair, 1993). 일찍 어린 나이 때부터(10대 중반부터) 집안일을 돕거나 거의 무보수로 가정부 노릇을 하다가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일해 오고 있는 여성들도 있다(Pieto, 1997). 이들에게 있어서 마길라 산업은 첫 임금 고용의 기회가 되는 셈이며, 경제적으로는 이전에는 가져 보지 못했던 구매력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서 일하는 마길라 노동자들의 평균성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마길라 산업이 건설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 199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76년에는 마길라 노동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9%까지 되었었으나, 그 이후로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여성이 58%를 차지하고 있다(INEGI, 1997). 그러나, 현재에도 공장에 따라서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남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마길라 산업 전체의 평균성비보다 훨씬 높은 곳도 있다. 예를 들어, GM이나 Tricon의 경우는 80%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길라 산업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종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마길라 노동의 성격이 소위 남성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여성성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노동현장에서 통제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복종적이고, 회사에 대한 요구(예를 들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가 적으며, 손가락이 유연하여 생산성이 높고,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데 관심이 적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이미지는 멕시코나 미국과 같이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전형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

그런데, 마길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이미지와 부합하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arrillo(1985)의 연구나 필자가 행한 마길라 노동자들과의 면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특별히 순종적이거나 회사에 대하여 요구를 적게 한다는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유연한 손가락을 가졌다는 것도 철저하게 성차별주의적인 '이미지 만들기'라고 볼 수 있다.¹⁵⁾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재하는 여성성과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논의보다는, 이러한 '이상적인' 마길라 여성 노동자상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본가계급이 자본의 재형성이라는 추세와 발맞추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상적인' 노동자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마길라 노동자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길라 산업이 특별히 여성 노동자들을 남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선호할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Sklair, 199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 마길라 산업의 성비 변화는 실제로 이러한 추측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길라 공장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성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단순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금도 거의 비슷하다. 마길라 산업이 특별히 여성 노동자들보다 남성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마길라 공장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여성들에게 임금고용의 첫 경험,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식적인 경제 부문으로서 거의 유일한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¹⁶⁾ Tianox(1994)의 주장대로 마길라 산업이 여성들을

15) 마길라 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본 그 자체는 성차별주의자도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지만,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교묘히 이용한다.

16)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은 마따모로스처럼 근처에 항구가 있어서 하역장에서

선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의 실업을 초래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족이나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흔히 이들은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나 가족 성원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경 도시에 대거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마길라 산업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경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마길라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남성들에 비하여, 혹은 다른 여성들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길라 노동자들 중에서는 남성 노동자들보다 여성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노동자들이 집안일과 공장일을 둘 다 해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가부장제 사회들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길라 기업들의 고용절차에서부터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겪지 않는 혐오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용접이나, 강한 화공약품을 다루는 것과 같이 힘든 일, 위험한 일들이 주어진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남성 관리자들의 성희롱은 마길라 공장에 만연된 문제라고 필자가 면담한 여성 노동자들은 지적한다.¹⁷⁾ 그러나, 아무리 마길라 노동이 힘들고 지루하고, 산재의 위험이 도처에 존재하고, 또한 성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즉,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실재하는 고용기회를 항상 웃도는 것이 멕시코 국경 도시들의 현실이다(Sklair, 1993).

일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마길라 산업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고용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 17) 마길라 기업의 공식적인 노동조합들은, 남성 공장운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거나 성폭력을 가할 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기보다는,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기까지 한다. 노동조합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 중에 80% 내지 90%가 여성들인 공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길라 산업에서의 고용불안정성과 관련하여, 한 마길라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여성 노동자들보다는, 일해 온 지 3년 내지 4년밖에 안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Tiano, 1994). 필자가 면담한 마길라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마길라 공장 노동자들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보다는, 기회만 있다면 더 나은 노동조건(주로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 언제든지 직장을 바꿀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직장이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우연히 기회가 닿으면 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더구나 높은 실업률 등, 흔히 경제적인 위기로 표현되는 멕시코의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일은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로 간주된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 공장 저 공장으로 전전하고, 그러는 동안에 실업 내지 반실업의 상태에 빠지면서도 일단 마길라 산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마길라 산업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특별한 기술도 없이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업적 상황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춘이라든가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가정부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종사함으로써, 항상 법의 제재를 받을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마길라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생계유지비로 지출한다. 미혼의 여성 노동자들도 거의 대부분의 임금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집안 살림하는 데 쓰게 한다. Z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 노동자는, "나는 임금을 매주 받아도, 내 스스로를 위해서는 돈을 별로 못 써요.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줄곧 돈을 아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죠. 식구들의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모두 줄여야 해요. 나는 지금 신발도 옷도 여분은커녕, 오히려 모자라는 상태에 있어요"라고 말한다.

마길라 공장에는 미혼여성들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일하고 있다(Prieto, 1997). 기혼여성들 중에는 남편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

있거나,¹⁸⁾ 이혼하여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살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생계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어머니와 딸, 언니와 동생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해고되지만 않는다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려고 한다. 정년이 제도화되지 않은 마길라 공장에서는 70세가 넘는 고령 노동자들도 발견되며, 이들은 10년 정도 한 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일한 지 일년밖에 안된 젊은 노동자와 비슷한 임금을 받는 등 일한 햇수와 임금은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어떤 마길라 공장들은 계속해서 노동자들과의 계약내용을 불법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한 공장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해 주어야 할 임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우대들을 교묘히 피해 간다.

여성 노동자들은 어떤 특별한 선호가 있어서 마길라 공장에서 일한다기보다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생계해결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마길라 공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혹은 해고되었었다가 다시 마길라 공장에 고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는 일(즉, 가정부)을 해 본 경험들이 많다. 회사에 따라서는 기혼녀 고용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거의 모든 마길라 공장에는 기혼녀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은 가족부양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18) 마길라 노동자 가족들은 불안정한 삶의 조건 속에서 생활해 오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신체적 질병 내지 불구,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가족성원들이 많다. 이들은 ‘불량하게’ 지어진 주택에 살면서 집이 무너져 목숨을 잃는다든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심한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켜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든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다가 리오그란데(Rio Grande) 강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등, 산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고들도 자주 경험한다.

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나빠도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노동과 집안일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서, 어려운 노동 조건 속에서도 생계해결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특히,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멕시코 사회에서 종교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의 출구와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도 수작업을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노동하는 과정 중에 얻게 된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하여 많은 불평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는(해고의 위험부담 때문에) 상황 속에서, 자신들 삶의 음향벽(soundboard) 역할을 하는 성당이나 교회를 주일마다 찾게 되는 것이다. 한창 신축중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고통이나 문제, 그리고 아픔들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또 해결해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혹과 걱정의 악마를 이길 당신들은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 안에 구의 하라고...

종교는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에 대한 출구와 위안을 제공하는 외에, 도시공동체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교회나 성당들은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동네(colonia : 빈민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동네의 제반 주거환경을 개선하지는 요구가 주민운동화할 경우에, 교회나 성당은 주민들과 동네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즉, 마길라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내세에 대한 이념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실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들보다는, 직접 매일매일의 생활을 꾸려 나가는 여성들에게 종교는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V. 마길라 노동자들의 거주지역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길라 산업은 멕시코 국경 도시의 생성 및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멕시코 국경 도시의 생성이 시기적으로 마길라 산업의 형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마길라 공장들이 국경 도시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는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집단적인 주거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즉, 멕시코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길라 공단은 흔히 불모지에 세워지고, 노동자들의 거주지역도 공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길라 노동자들은 마길라 공장이 위치해 있는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는 인근 지방이나 멕시코 내륙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더 많다. 이들은 특별히 마길라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국경지대로 이주해 왔다가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국경지대로 가면 일거리가 있고, 살 곳도 마련할 수 있다는 막연한 소문을 친척들이나 친지들로부터 듣고 떠난 것이다.¹⁹⁾

19) 필자가 티후아나시 외각에 위치하고 있는 마길라 공단 주변의 한 동네를 방문했을 때에도, 모녀로 보이는 두 여인이 간단한 보따리 두어 개를 들고서 그 동네의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당분간' 생활하다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기회가 닿으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소위 '약속의 땅'(a promised land)이라고 여기고 있는 미국으로 이주해 가려는 꿈을 갖고 있다.

이들 이주자들은 공단 주변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하면서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주거를 해결한다. 이러한 주거지역의 특징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전기시설, 포장도로, 그리고 학교 등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불모지로서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플라스틱, 나무 조각, 시멘트 벽돌 등의 재료들을 다치는 대로 구해다가 자가 건립한, 소위 불량주택들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티후아나시에는 마길라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단 주변의 불모지에 무허가 정착촌(colonia)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8개에 이르고 있고 이곳에 수천 가구들이 모여 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마길라 공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불리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기는 하나,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주변에 살 곳이 있고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리 삭막하지 않은 점 등을 무허가 정착촌의 상대적인 이점으로 지적한다. 또한, 마길라 공장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망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존전략의 기제로서,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⁰⁾ 멕시코 내륙이나 남부지방에서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을 빈번하게 상호 방문하면서, 생활필수품들을 호혜적으로 교환하고, 아이들을 서로 돌보아 주면서 신뢰감, 연대감, 그리고 상호의존성 등을 발전시켜 나간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교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웃관계의 측면이

책임자를 찾아 집 짓고 살 땅을 좀 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0) 이러한 빈민촌 주민들간의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Lomnitz(1975), Vélez-Ibañez(1983), 그리고 Selby et al.(1993) 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길라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웃의 소개로, 혹은 이웃이 정보를 주어서 직장을 얻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웃관계망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마길라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일지라도 구직과정중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웃사람을 만난다면, 훨씬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 이웃 사람이 구직자에 대하여 소위 '말 한마디라도 좋게' 자기 상사에게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길라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하여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가족 성원들이 마길라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노동자 가족들 중에서 핵가족 성원들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성원들 중에서 한 명 이상이 마길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친분을 통해 자신들이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상의 고충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길라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적인 협약이나 노동권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멕시코 주요 정당의 정치력 확보를 위한 어용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길라 노동자들이 모여서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할 때, 그들이 손수 지은 주택들이 시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고,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누에보 라레도시의 경우처럼, 그러한 줄다리기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도시주민위원회' 같은 조직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한 조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단 행동을 꾀하기도 한다. 도시 주민들은 후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주민위원회들과 연합하여 지역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

다. 도시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5년, 10년, 혹은 30년이 걸려서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을 하나씩 얻어낼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은 흔히 길고 어렵기는 하지만, 도시공동체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는 강한 자부심을 더불어 갖고 있다.

끈질긴 주민운동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무허가 정착촌들도 있으나, 새로 형성된 무허가 정착촌의 주민들은 상·하수도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마길라 공장들에서 다량으로 방출되는 산업폐기물들이 흘러가는 개천을 목욕, 빨래 등을 위한 생활용수로 이용하게 되고, 이는 온갖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따모로스시에서 마길라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자기 집 옆에 흘러가는 악취 나는 개천을 가리키면서, 자기 동네에서는 집집이 키우던 돼지와 닭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죽어 간다고 말해 주었다.

최근에 들어서, 마길라 산업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한 부문은 바로 이러한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마길라 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마길라 산업이 무단으로 방출해 내는 유해 폐기물의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 등지에 있었던 많은 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 공장들이 멕시코 국경 도시들로 대거 이주해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공장들이 맹독성 화공약품의 방출 및 산업폐기물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들로 미루어, 이러한 공장들이 모여 있는 멕시코 국경 도시들도 똑같은 환경오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쉽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 연구한 멕시코 국경 도시들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마길라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전자제품과 전자부품 생산 공장들 외에도 많은 다른 공장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멕시코 정부에 도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행정부서로는 도시개발 및

생태부(Secretaria de Desarrollo Urbano y Ecología, 혹은 SEDUE)가 있으나,²¹⁾ 이 부서는 여러 가지 도시정책 수행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주택문제 해결에 더 역점을 두고, 대신에 도시의 환경이나 생태 보존의 문제는 간과해 왔다. 국경지대의 환경오염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자, 1983년에는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소위 평화협약(La Paz Agreement)이라는 것을 맺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마길라 산업에 의해서 야기되는 환경오염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실제로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이 환경법의 구속을 받기 시작한 것은 6년 뒤인 1989년으로서, 마길라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한 때에 이르러서이다.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환경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 내지 주정부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종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정부나 주정부나 새로운 환경법이 지정하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작업을 벌이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멕시코의 마길라 산업은 환경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길라 공장들은 여전히 국경 도시들의 환경을 아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수자원의 오염이라든지 맹독성 산업폐기물의 무단방출은 국경 도시의 마길라 공단 주변에서 예외 없이 엄연하게 목격되고 있다. 또한, 마길라 공장운동을 위하여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여오는 맹독성 물질들의 양과 멕시코의 마길라 공장에서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맹독성 산업폐기물의 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Shaiken, 1990). 맹독성 물질들을 다루는 대부분의 마길라 공장들이 산업폐기물들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법을 어기고 공단 주변에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마길라 공장들이 다 쓰고 난 맹독성 화학약품 통들을 마길라 노동자들에게 판매하여 음료수용 물통으로 쓰게 한다는 사실이다.

21) 1992년에 SEDUE는 없어지고 사회개발부(SEDESOL)로 흡수되었다.

마길라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공공연한 보호 아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있고, 공장 주변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Chicago)의 외곽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멕시코의 마따모로스시에서 합성세제를 생산하고 있는 S라는 회사 부근의 0.5마일(0.8 km)이나 되는 길은 이름도 아예 '화학약품 길' (Chemical Road)이라고 불린다. 일년 내내 계속되는 악취로 사람들이 코를 막고 길을 걸어다녀야 할 정도이며, 많은 노동자들이 호흡계 질환들을 앓고 있다.²²⁾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미국 환경보호국이 정한 수치의 수만 배 이상씩 대책 없이 마길라 공단 주변의 노면에 그대로 방출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마길라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단지역이나, 그 주변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마길라 공장지역 주변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농촌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Bush 행정부 때부터 추진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공약에 따르면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환경대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다. 여기서 자라났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개탄한다.

VI. 맺는말

마길라 산업과 같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EOI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중심부적 위치에 있

22) 1992년 8월에 Mark R. Day가 만든 "Stepan Chemical : The Poisoning of a Mexican Community"라는 Video 참조

는 자본주와 제3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정치적, 이념적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흔히 다루는 다국적 기업, 멕시코 정부, 그리고 멕시코 자본가들 간의 3자 동맹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노동경험과 생활상을 분석하면서 마길라 산업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밝혀 보고자 시도하였다.

멕시코에서 마길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단순하다. 멕시코의, 특히 국경지대의 실업률은 높고, 그렇다고 멕시코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실업인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멕시코의 외채부담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마길라 산업은 멕시코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즉 '고용, 기술, 그리고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길라 산업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내의 노동력이 점점 고비용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생산 공유' (production sharing)라는 방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과정을 변화시켜 가면서, 저기술, 저부가가치형 고용은 외국으로 수출하고, 고기술, 고부가가치형 고용은 미국에 남기는 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에게 지리적으로 근접한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매력적인 곳으로 부상하였고, 특히 마길라 산업을 통하여 미국 내에, 역시 '고용, 기술, 그리고 달러'를 유지 내지 축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길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길라는 단순히 '고용, 기술, 그리고 달러'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문제이면서, 복잡한 문화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space)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며, 노동강도 또한 높으나, 생계해결을 위한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는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열악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법적이기도 한 마길라 노동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항상 산재의 위

협과 부당해고의 위협 속에서 일하면서도, 그리고 막상 해고를 당했을 때에도 또다시 다른 마길라 공장에서라도 일거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모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마길라 산업은 멕시코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골칫거리이기도 한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항상 일거리를 찾거나 국경을 넘어 가려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마길라 산업은 임금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동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멕시코와 미국에 각각 다른 대안책을 제공한다. 즉,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로부터 무단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마길라 노동자로 묶어 둘 수 있고, 또한 멕시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의 불법이민보다는 조금 덜 비인간적인 삶의 방법을 마길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경 도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1994년에 제정된 NAFTA는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의 작업조건에 있어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들을 제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공헌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멕시코 마길라 노동자들에 관한 본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그러한 균등화가 빠른 시일 안에 실행될 전망은 매우 어둡게 보인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멕시코와 미국 간의 국경이 점점 크게 열려 감에 따라, 양 정부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기는 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Sklair(1993)가 지적한 대로, 제반 정치적 사항들이 결정되는 멕시코시와 워싱턴시는, 실제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경 도시들로부터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서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얼마나 국경 도시 주민들을 위한 결정들이 내려질지 의심이 간다.

CJM의 실행책임자(executive director)인 Martha Ojeda의 말대로, “멕시코 국경지대는 다국적 기업인 마길라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낙원이다. 기업운영에 있어서 멕시코 정부로부터의 규제가 거의 없고, 노동자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4년 멕시코 역사상 최악의 폐소 가치절하가 이루어지면서, 멕시코 노동자들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굴욕적인 고용관계라도 참아 내도록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굴욕인가?—결국은 더 나은 임금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위해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보다 안전한 노동조건을 위해서도 아닌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한탄이 가까운 장래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동시에 생계해결책으로서의 마길라 노동은 여전히 많은 국경 도시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직종으로 그 이미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Briggs, Vernon, *Immigration Policy and the American Labor Force*,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 Carrillo, Jorge, *Conflictos laborales en la industria maquiladora*, Tijuana : CEFNOMEX, 1985.
- CJM or 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Annual Report 1996*, San Antonio, TX : 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1997.
- Cook, Maria Lorena et al. (ed.), *The Politics of Economic Restructuring: State-Society Relations and Regime Change in Mexico*. San Diego :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 Day, Mark R., *Stepan Chemical : The Poisoning of a Mexican Community*, Video, 1992.
- Fernandez-Kelly, Maria Patricia, *For We Are Sold, I and My People: Women and Industry in Mexico's Frontier*,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3.
- Forbes*, February 9, 1998.
- Foster-Carter, Aidan,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Ormskirk, England : Causeway, 1985.
- INEGI or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Mexico City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1997.
- Larousse, Librairie, *Larousse : Gran Diccionario Moderno, Espanol-Ingles*, Paris : Ediciones Larousse, 1983.
- Lomnitz, Larissa, *Networks and Marginality : Life in a Mexican Shantytown*, New York : Academic, 1975.

- Middlebrook, Kevin (ed.), *Unions, Workers, and the State in Mexico*, San Diego :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1.
- Prieto, Norma Iglesias, *Beautiful Flowers of the Maquiladora : Life Histories of Women Workers in Tijuana*,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7.
- Safa, Helen I., "Runaway Shops and Female Employment : The Search for Cheap Labor," *Women's Work : Development and the Division of Labor by Gender*, Eleanor Leacock and Helen I. Safa(eds.), South Hadley, MA : Bergib & Garvey, 1986.
- Shaiken, Harley, *Mexico in the Global Economy : High Technology and Work Organization in Export Industries*, San Diego :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0.
- Sander, Guillermo and F. Mendoza, "Compensation Overview," *Twin Plant News*, 1990.
- Sklair, Leslie, *Assembling for Development : The Maquila Industry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an Diego :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3.
- Szekely, Gabriel (ed.), *Manufacturing Across Borders and Oceans : Japa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San Diego :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1.
- Tiano, Susan, *Patriarchy on the Line : Labor, Gender and Ideology in the Mexican Maquila Industry*, Philadelphia, PA : Temple University Press, 1994.
- Velez-Ibanez, Carlos E., *Rituals of Marginality : Politics, Process, and Culture Change in Central Urban Mexico, 1969~1974*,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